

완주 '10년 플랜' 본격 추진 11조 1543억원 투자 계획

군, 2025 장기종합발전계획 확정

완주군이 15만 도농복합자치도시의 원대한 비전을 담은 '완주비전 2025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군에 따르면 시대적 발전상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2025년 완주군의 역동적인 미래비전과 인구 15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지표와 실천적 전략과 계획들이 담긴 '완주비전 2025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계획실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15년 기준에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10개년 계획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추진되며, 7대 분야 총 23개 분야별 전략과제를 설정해 총 11조 1543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발전전략으로는 ▲첨단물류, 유통도시 ▲미래융합형 창조산업도시 ▲산림농정의요람 부농도시 ▲지역창생을 선도하는 문화예술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매력

있고 품격높은 관광도시 ▲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도시 등을 통해 '행복한 변화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인구 15만 자족도시에 부합하는 도시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도시성장권(삼례, 봉동, 용진, 이서), 전원레저권(상관, 소양, 구이), 관광휴양권(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으로 묶어 균형발전 체계를 구상했으며, 산봉·둔산지구와 13개 읍면에도 중심 기능을 설정해 거점간 주변 도시간의 광역적 연계성 확보 전략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완주군은 계획수립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전북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국책연구원, 지역현장전문가, 대학교수, 주민 등이 참여하는 분과별 포럼형태로 운영하였으며, 읍면별 순회 의견 청취,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강화해 주민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위민행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군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담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예산 및 각종 공모사업 확보로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요 핵심, 전략사업의 군 기본계획 사전 반영 등 15만 도농복합자치도시의 행복한 변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전계획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계획수립에 참여한 국책연구원과 전북연구원과의 공조체제를 굳건히 지속하고, 매년 주민과 전문가 및 군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와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해 수정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오는 2025년까지 완주군의 먹고사는 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비전을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담겼으며, '15만 자족도시, 완전한 완주'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군민과 함께 실행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종복기자

장수군, 중기 육성기금 추가 지원

4억 1천만원 용자

연 2% 고정금리로

장수군은 2016년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5억9천만원을 용자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4억1천만원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자로 중소기업은 장수군 관내 공장등록을 한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1등급에서 4등급이내 관내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용자조건은 연리 2% 고정금리에 용자 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로 용자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대상자는 기업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신용등급 5등급이하)은 장수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3천만원 용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3% 이내로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위 출범

제3기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구동수)는 지난 1일 출범식을 갖고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할을 결집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군은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민·관 파트너십 형성으로 군재정의 이해도를 확산시키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보장 군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15명으로 구성된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활동, 지역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읍·면 지역분과위원회 구성(71명)을 마치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동수 위원장은 "1기와 2기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오늘에 이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무주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은 시설 내 전구를 모두 LED로 교체했다.

운동도 독서도 예체문화관에서

무주문화체육시설 새 단장

무주군은 무주읍 예체문화관 내 수영장과 체력관, 도서관 등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연간 이용객 9만2,545명)을 새롭게 단장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수달수영장과 건승체력관의 소독과 청소, 시설 개보수를 모두 마쳤으며, 수영장은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을 유아 풀까지 모두 교체했다.

25m레인 6개로 구성돼 있는 수달수영장의 수용 인원은 50명으로, 수영장수심 최고 1.5m, 최저 1.2m)과 유아풀장, 건승식 사우나, 샤워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런닝머신 등 30종의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건승체력

관은 최근 어르신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체 단련용 '베그스페이스머신'과 등 근육 강화용 '턱걸이 운동기구'인 '치닝디퍼머신'을 추가했다.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은 피톤치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시설 내 전구를 모두 LED로 교체해 쾌적함을 살렸으며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신간 982권을 추가로 비치했다.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열람실 54석, 평일 09:00~20:00 / 토·일 09:00~17:00)은 4인1, 5인16권의 장서와 DVD 7백 장, 컴퓨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길 위의 인문학 특강"과 "일 서서 체험교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완주군, 공공 디자인 개선사업 전개

용진 도계·운주 백석마을 정주공간 개선·범외 예방

완주군이 올해 용진면 도계마을과 운주면 백석(차돌배기)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일 완주군은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공간디자인 개선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공간을 개선시켜 주민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쉼터 조성 등 지역 정주공간 개선과 함께 담장벽화 설치, 범죄예방 디자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독사업화, 그리고 마을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

완주군은 오는 7월까지 용진 도계마을의 경우 마을 공동체 사업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시설 및 경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운주면 구제리 차돌배기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지원을 활용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키로 했다.

완주군은 2014년부터 매년 2개씩 지역 마을의 공간 디자인 개선을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각 마을의 공공공간에 대한 경관이 좋을수록 주민의 주거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2개 마을 외에도 연차적으로 경관디자인 개선을 추진해 살기좋은 농촌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국립플리츠

장수군,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장수군이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건설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31일 김윤섭 부군수 주재로 주요사업 대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제4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7~2018년 국가 및 공모사업과 도 지정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발굴된 97건 4,929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부서 검토를 통해 타당성 결여로 제외된 17개 사업과 기 확보된 6개 공모사업을 제외한 입찰~장수간 국도 건설사업, 수분해위험지구 개선 등 총 74건 4,071억원의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관내 삼수매 본격 나서

진안군은 진안삼매 활용을 통한 진정한 진안홍상을 만들기 위해 진안삼매 수매사업에 본격 나섰다.

홍상한방 플러스터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진안삼매 수매사업'은 관내 소농가 위주 년근이 오래된 삼매를 우선적으로 수매하며, 홍상명인의 이미지 활용을 위하여 명인방식 증삼과 일반방식 증삼을 병행 추진하고 생산된 홍상은 관내 홍상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순환적 유통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진안삼매의 외부 유통 방지 및 진안삼매로 만든 홍상을 가공함으로써 민생기 공약사업인 진안홍상 명품화 전략의 통합은 물론 인삼농가 및 홍상 가공업체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우태민기자

무주경찰, 총선 24시간 단속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무주서 시야에는 선거상황실 3단계 단속체제 가동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기존 '수사 전담반'의 인원을 보강하면서, 순경 10명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3단계 단속체제는 4월말까지 수사전담반이 24시간 항시 근무체제를 갖추어 총력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주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를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을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사업과
063-430-2951